



본지는 이번 호부터 ‘Blended e-Learning 교수 전략’이란 주제로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Blended e-Learning은 최근 몇 년간 교육 현장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팽창한 e-Learning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아래 도입된 보완적인 교수·학습 전략이다. 그간 대학교육에서는 e-Learning이 그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전통적인 면대면 강의의 교육성을 소홀히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Blended e-Learning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면대면 강의와 e-Learning을 적절히 통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우리가 그동안 ‘e-Learning’에 대해 어떠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Blended e-Learning 교수 전략

I. e-Learning에 대한 잘못된 신화

- II. 강의 유형에 따른 블렌딩 전략
- III. 교수 자료 설계
- IV. 강의 운영
- V. 학생 평가

이혜정*

e-Learning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를 부담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교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얼핏 생각하기에 컴퓨터를 잘 다루어야 될 것 같고, 교수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도 같고, 학습 효과가 기존에 해오던 강의만 못할 것도 같다. 그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자는 e-Learning 환경에서의 교수·학습을 제대로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분들의 부정적 인식은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매체지원부 선임연구원.



에 기반을 둔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e-Learning의 실상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자

1. 컴퓨터 실력이 좋아야 한다?

많은 교수자들이 e-Learning은 컴퓨터를 잘하는 젊은 교수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e-Learning을 하기 위해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반드시 자동차 전문 기술자일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을 잘 하려면 자동차 전문 지식보다는 교통 환경에 대한 이해와 길에 대한 정보, 실제 운전 경험 등이 중요한 것처럼, e-Learning을 잘 하는 데에는 인터넷 기반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수 전략, 실제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 등이 더 중요하다 e-Learning은 디지털에 익숙한 학생들과 호응하겠다는 의지와 자신의 강의를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다루는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2. 환상적인 플래시나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한다?

필자가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e-Learning 프로그램이나 강의안을 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만큼 환상적인 플래시나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유럽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교육 과정 전반에서 e-Learning을 활용하고 있고, 박사급 이상의 코스에서도 e-Learning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e-Learning은 대부분 자료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이들 프로그램의 화면에서 환상적인 애니메이션이나 플래시 등은 찾아보기 극히 힘들다 오히려 베스트 프로그



웹이라고 분석된 프로그램 중에는 애니메이션은 고사하고 작은 이미지 하나 없는 것도 허다하다 대신 텍스트로 제작된 강의 내용이 재미있는 소설처럼 술술 읽어갈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화면을 근사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해가 잘 되는 텍스트를 만드는 데 더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e-Learning 프로그램에서 근사한 그래픽이나 환상적인 애니메이션은 일시적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끄는 영화 포스터와 같은 역할을 할 따름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학습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 강의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환상적인 애니메이션을 동경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강의안은 상업용 광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3. 교수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상당수의 교수자들은 e-Learning 같은 새로운 무언가를 하면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었는데 굳이 또 다른 일을 벌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 모르던 기술도 배워야 할 것 같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들의 질문에도 일일이 답해주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도 많아 보인다 그러니 교수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e-Learning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e-Learning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처음 몇 주 혹은 몇 달 간의 기간에만 조금 신경을 써두면, 이후에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Learning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급한 회의나 학회 등의 일이 겹쳐서 부득이 휴강을 해야 하는 경우, 또 공휴일이 겹쳐서 결강되는 경우에도 휴강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학생들의 질문도 조교에게 1차적으로 답하게 하고 꼭 교수가 답해주어야 할 질문만 걸러내도록 하면 별로 많지도 않다 게다가 e-Learning 환경에서의 여러



강의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강의실 수업에서 교수자가 열심히 했을 때보다도 더 효과적인 강의를 하면서 교수자는 여유를 갖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예컨대, 학생들의 질문이 게시판에 올라올 경우 이에 대해 동료 학생들이 답하게 하고, 우수한 답변의 경우 가산점을 주어 성적에 반영하면, 학생들은 공부가 되어 좋고 교수자도 여유를 얻을 수 있어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4. 교수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캐나다의 한 대학원 수업에서 학생들 간의 토론 중에 이런 말이 나왔다

“어떤 나라에서는 e-Learning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두고두고 돌리면서 수백 수천의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도 안 들이고 운영한다더라. 아직도 명확처럼 일단 만들면 계속 돌릴 수 있는 개념으로 알고 있더라고.....”

필자는 우리 현실을 꼬집는 것 같아 낮이 화끈거렸다 이 토론의 요지는 e-Learning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잘 쓰인 책이 있다고 해서 강의를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좋은 책 저자의 직강은 오히려 더 선호되지 않는가? e-Learning이든 강의실 수업이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대충 시간만 때우는 수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수자 스스로 강의의 질적 효과에 욕심이 있다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5. 학습 효과가 강의실 수업만 못하다?

e-Learning은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강의실 수업만 못할 것이라는 인



식도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의실 수업은 항상 학습 효과가 좋은가? 아마도 그건 교수자가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답할 것이다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학생들을 가르쳐도 교수자에 따라서 집단의 평균이 달라지는 예를 정규 교육에서 쉽게 볼 수 있다 e-Learning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Learning이기 때문에, 즉 강의실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지거나 혹은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e-Learning이든 강의실 수업이든 교수자가 학습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은 천차만별이 된다 다만 동일한 교수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집단의 학생에게 가르칠 경우, e-Learning으로도 강의실 수업 못지않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데이터들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e-Learning 같은 것은 강의실 수업만 못하지 않나요?” 혹은 “그래도 얼굴 보고 하는 도제식 수업이 최고지” 등과 같은 발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e-Learning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e-Learning은 만병통치약인가? 이것만 쓰면 학습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가? 물론 아니다 e-Learning을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쯤으로 생각하는 일부 급진주의자들의 인식도 또 다른 편견일 수 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사이버 대학들처럼 완전히 e-Learning으로만 강의하자는 것이 아니다 강의실 수업은 지금처럼 하되, 수업시간에 하지 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e-Learning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e-Learning이 아닌 ‘Blended e-Learning’인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